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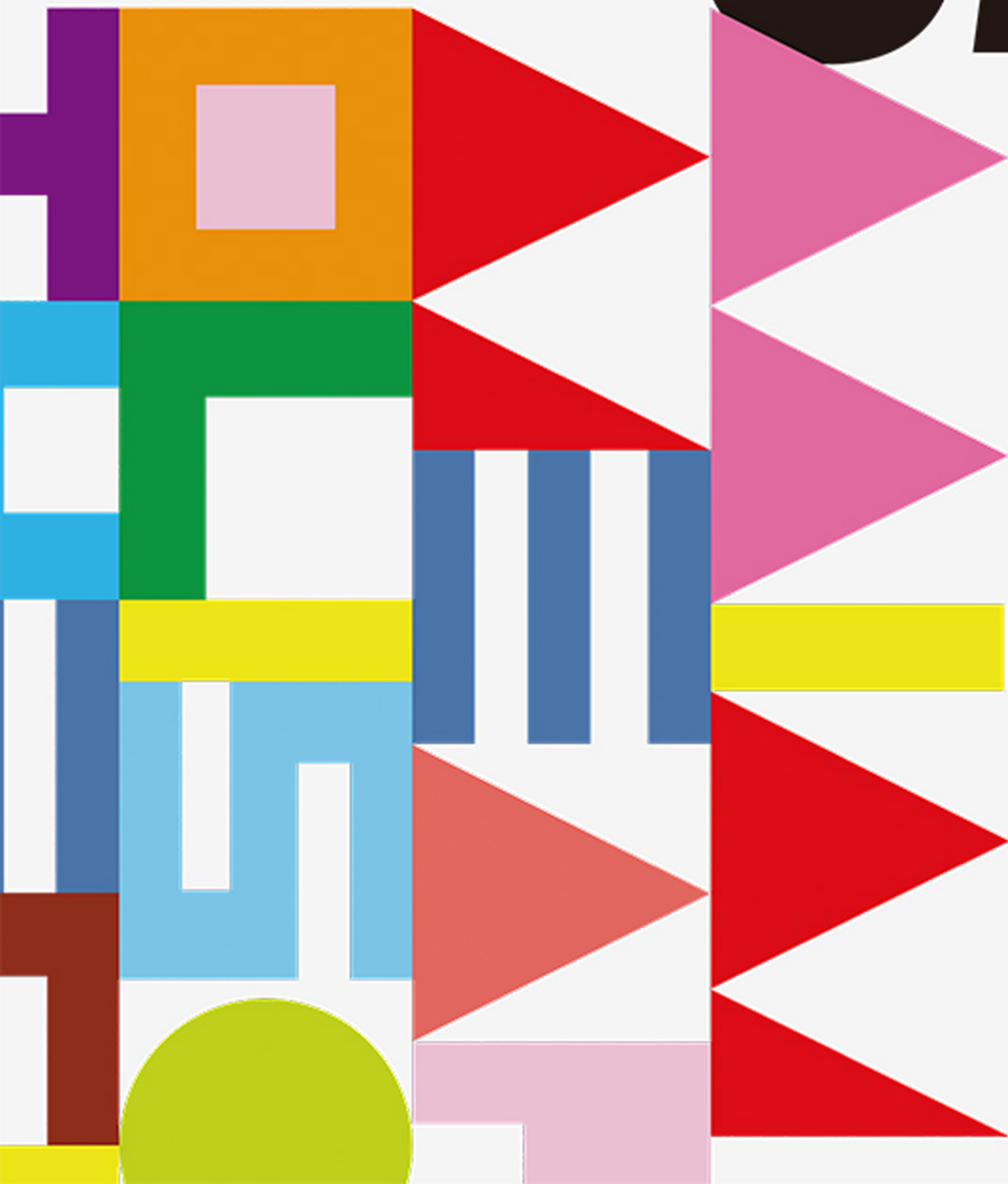
CREATIVE DESIGN MAGAZINE

COMMUNICATION ARTS
CREATIVE ARTS
COMPUTER ARTS

CGA

ISSUE #215 — 2015.10

타입의 미래
THE FUTURE OF TYPE



FEATURING

아드리안 쇼네시가 밝히는 동시대 타이포그래피의 트렌드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생각: 이지원, 유지원, 장수영, 류양희, 이용제, 정대인, 심규하, 크리스 로
100종의 한글 그림 서체 전시로 한국을 찾은 디자이너 조규형과의 대화
스톤브랜드 커뮤니케이션즈가 밝히는 맥스웰하우스 캔커피 디자인 리뉴얼 과정
에이전시 리: 시드니가 말하는 호주 영 연구 재단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개발 과정
미국 '올해의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션' 금상에 빛나는 그림책 <수영장> 제작 과정

우고 론디노네 개인전

—
거대한 돌 앞에서 펼쳐보는 상상의 나라

스위스 출신 우고 론디노네의 개인전이 국제갤러리 3관에서 진행 중이다. 다년간 다양한 작품 연작을 진행해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섯 개로 구성된 청석 조각 연작을 공개했다. 거석 조각을 잘라 쌓아놓은 청석들은 외관상 거칠어 보이나 작가는 직접 만지며 조각과 교류하길 권장하며 돌의 형상 앞에서 다양한 상상을 꿈꿔볼 것을 유도한다. 이번 연작 내 형상들의 제목을 국문으로 의역하면 '참견쟁이', '번태', '관찰자', '호기심쟁이' 그리고 '순종자'인데 인간 군상처럼 보이는 이들의 역학관계를 관람객 스스로 설정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람 재미가 될 수 있겠다.

그의 작업 앞에 서노라면 거대한 고인들이 연상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난 겨울 절찬리에 상영되었던 영화 <빅 히어로> 속 로봇 캐릭터 '베이맥스'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작가 우고 론디노네를 수식함에 있어 따라붙는 '탁월한 조형적 감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렵듯이 파악할 수 있다. 문화권을 막론하고 또한 시대를 넘나들며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형태를 갖고 해석이 무궁무진한 작업 세계를 선보이는 것이다. 전시 기간이 다소 짧아 아쉽지만 대신 국제갤러리 1, 2관에서 진행되는 하종현 회화전도 놓치지 말고 함께 감상하길 권하는 바이다.



우고 론디노네 개인전
UGO RONDINONE
KUKJEGALLERY.COM

—
일사: 2015년 9월 1일-10월 11일
장소: 국제갤러리 3관

2015 자그다 서울 전시

—
한눈에 파악하는 일본 디자인의 흐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자인 단체이자 일본 최대의 그래픽 디자인 협회인 JAGDA(Japan Graphic Designers Association, 이하 자그다)의 전시가 삼원페이퍼갤러리 1, 2관에서 진행된다. 1978년 가메쿠라 유사쿠를 중심으로 설립된 자그다는 현재 약 2,8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그다의 공모전 수상작들과 우수작들을 통해 현대 일본 디자인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그 해의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가메쿠라 유사쿠상, 자그다상, 그리고 39세 이하의 유망한 그래픽 작가에게 수여하는 자그다 신진작가상 등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많은 작품들은 각자의 매력으로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또한 포스터, BI, 타이포그래피, 패키지,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넘나들며 다뤄지는 그래픽 디자인의 영향력과 그 시각적인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전시 기념 특별 행사로 10월 17일에는 자그다 2014 신인상을 받은 디자이너 오히라 다이지로의 초청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본 디자인의 현주소를 직접 듣고 싶은 이라면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선착순 접수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2015 자그다 서울 전시
JAGDA 2015 IN SEOUL
PAPERGALLERY.CO.KR

—
일사: 2015년 9월 30일-11월 12일
장소: 삼원페이퍼갤러리 1, 2관

오히라 다이지로의 포스터 작업